

계란생산비용의 국제비교조사에 관하여

일본계란산업협회가 지난번 개최(2월 17일)한 총회에서 국제화에 대응하는 가격조정을 위해 계란생산비용의 국제비교조사를 실시하여 계란생산비와 품질에 관한 국제간의 비교우위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협회가 시행하고자 하는 조사의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앞서있는 일본의 양계산업이 긴박하고 불안한 현실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과 수단을 펴고 있는데 이 현실은 강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 발등에 붙은 뜨거운 불이기도 하다.

임 덕 성
(본회사무국장)

서언

우리는 해외 각국의 양계농장시찰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일본과 해외양계 선진국과의 계란생산비의 현저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내의 사료원료비가 싼것을 제외하고서도 그외의 계란생산비용 각분야에 있어 생산에 소비되는 물품가격에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가격 또는 단위당 요금 등을 직접 비교해 보면 백신값, 약품비, 병아리값, 사료제조비, 전기요금, 운송비, 통신비 등이 아주 싼값이다. 그 나라의 법률관계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계사건축에 있어 일본처럼 건축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들의 계사건축비는 아주 싸다. 또한 노무비에 있어서는 계사의 대형화, 기계화가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5내지 10배에 달하고 있으며 지금의 엔(円)화 환율로 환산하면 일본의 양계산업은 세계에서 최고의 인건비를 계란생산비에 지불하고 있는 계산이 된다.

이 가격차는 종전에도 없지는 않았으나 엔고(円高)가 가속화되므로써 더욱 눈에 띄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도 아직까지 일본양계업계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수입된 계란제품이 아주 미미한 적은 물량으로서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본양계업계는 과거 10수년동안 계란과잉생산대책에 쫓겨서 모든 문제를 국내로만 한정시켜 국제경쟁력의 비교까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다.

최근 2~3년동안의 엔(円)상승은 국내 계란시세와 연동되는 수입계란제품의 잠재적 수입압력을 급속하게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제 계란생산 코스트의 국제경쟁력 시비를 기피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엔고(円高)라든가 싼사료비의 국내계란생산비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엔고(円高)와 해외곡물시세가 안정돼 있는 덕택으로 국내배합사료 가격은 싼값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국내축산물의 생산비는 크게 싸지고 있으나 생산과잉과 시세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시세와는 별도로 엔고와 사료가격은 일본의 축산물가격의 국제경쟁력을 이론적으로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사료비는 주로, 환어음과 해외곡물시세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 비용의 부분을 「국제가격변동부분」이라고 하면 사료비를 제외한 기타부분은 주로 국내에서 결정되는 「국내비용구성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수년전에 배합사료가격이 톤당 6만엔 이상 하던 시기에는 계란생산비가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율은 65~70%이었으나 배합사료 값이 톤당 3만엔 전후인 지금의 비율은 42~47%로 되어있다.

「국내비용」은 과거 수년간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사료비가 싸질수록 또 「국제비용」이 싸질수록 국내비용의 비율은 높아졌다. 이것은 사료비가 싸졌어도 전체의 생산코스트는 그와 비례하여 떨어지지 않으므로 코스트의 경직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는 사료비가 싸진다는 것은 환영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오히려 그 때문에 일본의 계란은 자동적, 구조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해져가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둘째로 엔(円) 레이트(rate)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란생산비가 차지하는 「국내비용」에 관련된 직접적, 개별적인 엔고차익(円高差益)의 환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엔고 메리트(merit)에 의해 국내일반 물가수준은 안정되어 있으나 계란생산비를 낮추는데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인건비 등은 완만하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털어서 「국내비용」에는 엔고 메리트의 혜택이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비용은 증가추세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비용은 환어음의 변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위치에 있다.

세번째로 엔레이트의 대폭상승은 국내비용이 국외통화에 있어서 높게 환산되기 때문에 국내비용에서 생기는 일본의 국제계란 가격의 상승은 결코 무시할 만한 폭은 아니다. 예를들어 현시점에서 양계생산자의 총판매관리원가(최종판매거래선에 인수 인도할때의 손익분기점 가격, GP경비, 판매비를 포함한 것) 가운데 「국내비용」은 계란 1kg당 100엔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가정해서 이것을 100엔으로 계산한다면 엔 상승율이 과거 2년동안에 40%이상 상승되어 있으므로 국외통화로 환산해보면 국내비용은 140엔에 상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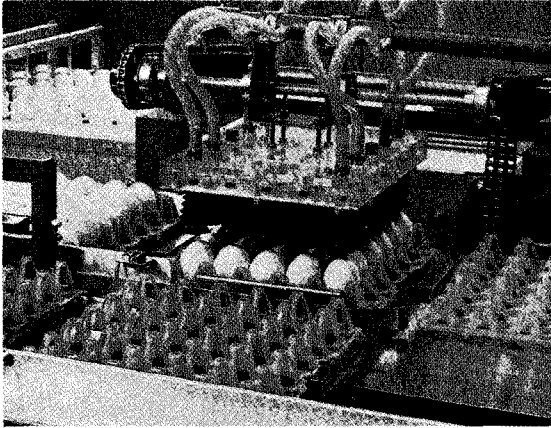
이 국외통화 환산으로 상승된 40엔은 지금의 계란 1kg당 사료비의 약 50%에 해당되고, 또한 계란의 총판매관리원가를 20%이상으로 치켜 올린 것과 맞먹는 국제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일본 자체만이 갖고 있는 사정에 따라, 구성된 「국내비용」은 일본의 계란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현저하게 상실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실상, 국외계란생산코스트와 일본의 코스트와의 차는 20%를 훨씬 넘는 큰 폭을 갖고 있으며 장차 엔(円)이 1\$당 100엔이될 시대를 생각하면 그 구조적 가격차는 더욱더 벌어져 일본의 양계산업은 「국내비용」의 합리적인 절감에 성공하지 않으면 국외로부터의 계란제품 수입잠재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1. 국제비교와 국제경쟁력의 차이

실제적인 문제로서 국제경쟁력을 생각할때 국내가격에 대한 수입가격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실(현실)이 결정적인 열쇠를 갖는 것이며 국제간의 계란생산비의 격차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란 수입이 성립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예가 있다고 본다.

- (1) 계란 수출국과 일본간에 결정적으로 큰 계란생산비 격차가 있을때
- (2) 일본 국내계란시세가 아주 높을때
- (3) 수출국측의 시세가 공급과잉으로 하락하여 일본으로의 수입이 성립할때
- (4) 해외국가내의 산업정책으로서 그 국가내의 생산자가 단결하여 잉여계란제품을 계획적으로 덤핑 수출할때(호주, 뉴질랜드, 남아 등)
- (5) 수입계란제품에 있어 특수한 원료란 가격의 가능성(예 : 시장이나 생산규모가 큰 미국에서 원료란으로 극대란, 극소란과 같은 규격의 사이즈만을 사용할 수 있을때 그 원료란 가격은 현저하게 싸진다)

이밖에 수출국측의 국내 및 해상운임 계란제품의 가공제조비용, 포장비, 품질유지에 관한 비용 등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결국 계란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계란이 제 1차산업의 농업생산물로서 세계가 공통으로 짐을 지고 있는 숙명적인 큰폭의 시장가격 변동조건을 배경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 뜻은 계란제품의 국제경쟁력 비교를 단순하게 각국간의 계란생산비의 격차만을 들어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반론할 수 있는 유력한 여건이 되는 것이다.

각국의 계란생산비를 실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위당 계란생산비(계란 1kg당 얼마?)를 계산한 결과 때때로 큰 오차(5~10%, 때로는 그 이상)가 생길때가 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그 나라가 채택하고자 하는 계란생산성 기준의 다양화 또는 임의적인 채택 또는 환산방법의 차이(예 : 다-스당 얼마라고 하는 표시는 다-스당의 정확한 계란중량의 표시가 없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생산비 비교의 장애가 되고 있다) 등이 있다.

또 국내에서도 양계생산자 간의 계란생산비의 우열차라든가 지역격차가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도착한 「C.M.C레포트(report)」(미국의 저명한 양계경영 전문지)에 의하면 미국의 1987년 7월에서 9월동안 C.M.C 고객의 성계 5,365만수에 대한 다-스당 평균생산코스트(단 : 일반관리비 및 금리 3~4센트 제외)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상위 3분의 1-33.65센트	}	코스트차 4.50센트(11.3%)
중위 3분의 1-35.89센트		
하위 3분의 1-38.15센트		
또 지역간의 격차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 남부-40.70센트	}	로서
캘리포니아 북부-38.69센트		
아메리카 북서부-38.90센트		
아메리카 남서부-36.49센트		
아메리카 남동부-34.84센트		
아메리카 중서부-34.28센트		

미국내의 지역간 최대격차는 6.42센트(11.9%)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어떤 나라의 정확하고 평균적인 계란생산코스트를 파악하려는 문제는 아주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수반되는 것이다.

2. 국제비교를 하는 방법

위의 여러가지 사항을 전제하여 시행코자하는 계란생산비용의 국제비교에 관한 고찰은 각국의 단위당 계란생산비를 결정해서 국제비교를 해보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참고자료로서만 쓰려고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양계생산자가 해외의 양계농장을 시찰하고 놀란것은 그 계란생산에 사용소비된 「물건의 값어치」가 일본에 비해 아주 싸다는 것이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그 놀라움과 불안감이 「왜 일본은 비싸다는 것인가?」라는 원인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었다. 물론 그가운데는 그 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사회비용까지의 문제가 포함돼 있겠으나 필요한 것은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해외 각국의 계란생산에 사용된 재물의 단위당 가격 또는 비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생긴 원인을 추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3. 국제비교조사의 전제조건

- (1) 조사대상국
- (2) 조사대상기간
- (3) 조사비목 및 선별
- (4) 정보출처 및 참고자료
- (5) 환산방법

4. 가격차이의 분석

제 2 차산업이후의 치열한 국제경쟁하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제조원가명세는 각 기업의 최고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쉽게 캐낼 수는 없으나 농산물의 일종인 계란의 생산비용명세를 얻는 것은 이 산업의 성격상 세계공통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계란생산비용의 국제비교에 있어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을때 그 이유, 원인을 검토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 (1) 인건비
- (2) 성계상각비
- (3) 개별상품의 가격
- (4) 에너-지(energy) 코스트의 분석
- (5)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법률, 제도 등과의 관계 등이다.

최근 수년동안 환경조절형의 완전 윈도레스(windowless) 계사에 대한 일본의 건축기준법 적용의 제약이 계사시설의 건축코스트를 대폭 인상시키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계사에 대한 그 나라의 건축기준법 또는

유사한 법률적용사례가 극히 적고 또한 계사건축비가 싸고 일본 국내 백신값이 외국가격의 5~10배나 비싼 것은 일본의 약사법에 규정된 여러가지 제약과 수속 때문에 백신제조비 또는 수입판매가격이 아주 비싸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비판은 일본의 법률이 국내의 계란생산비용의 높은 코스트와 관련돼 있다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반대로 일본 법률에는 없는 유럽제국의 동물애호법(닭 1수당 최저바닥케이지 면적의 규정)이라든가 구미제국의 계란품질검사에 관한 법률 등은 어떠한 형태로서도 그나라의 계란생산비의 상승요인을 초래하고 있는 면도 있다.

일본의 양계생산자가 해외의 양계농장을 시찰하고 놀란 것은 그 계란생산에 사용소비된 「물건의 값어치」가 일본에 비해 아주 싸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법률, 제도와의 관계」는 계란생산비용의 국제비교에 있어 「직접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비용구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조사에서는 국내의 법률 및 여러가지 제도와 국외의 그것들을 대비 연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아래 이 방침에 근거하여 다음 두가지를 중심으로 검토코자 한다.

- ① 법률이 가격형성에 관계되고 있는 것
- ② 법률규정이 직접적으로 양계사업경영에 관계되고 있는 것

맺는말

이 조사를 진행시키는데 있어 본자료에 제시된 우리의 생각과 조사방법, 내용 등은 우리가 요구하는 답(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므로 추가사항이라든가 수정해야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 조사는 한번 두들겨서 뚜껑을 열어보자는 것이므로 업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건과 협력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양계**